

전남도, 수출·소비 촉진으로 '쌀값 폭락' 대응한다

20kg당 쌀 소매가 전년비 12% ↓ 수출 확대 선포식...1000톤 목표 김 지사 "정부, 근본대책 마련을" 농림축산부 "이달 수급대책 발표"

전남도가 쌀 수출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통해 지속되는 쌀값 폭락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에 앞장선다.

3일 전남도와 aT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0kg당 평균 쌀 소매가(상품)는 2020년 5만3638원에서 2021년 5만9080원으로 2020년 평균 10.15% 증가했으나 2022년 5만1336원에서 2023년 4만6333

원, 올해 4만979원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가격이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해도 쌀값은 10개월째 지속 하락 중이다. 8월 기준 쌀값은 80kg당 17만6628원으까지 추락했다. 이는 지난해 고점이었던 80kg당 21만222원과 비교하면 무려 16%나 떨어진 가격이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 쌀 해외 소비 촉진을 통한 1100톤 수출을 목표로 한 마케팅 및 판촉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 및 가루쌀 생산 확대 지원과 더불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일환으로 전남도는 이날 담양군농협

에서 '전남쌀 수출 확대! 글로벌 도약 선포식'을 열고, 전남 농협 쌀의 수출 목표인 1000톤 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농협 또한 전남쌀의 품질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 가공, 유통 모든 과정에서 최고 품질의 쌀 수출을 결의하고 나섰다.

지역에서 전남산 쌀을 수출하는 생산자(RPC·농협·조공법인 등)와 전남 해외 상설 판매장의 현지 운영사인 수입업체 지원 및 전남도의회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통해 △아침밥 먹기 △쌀 가공식품 홍보 등 소비 장려에도 나선다. 전남도의회

는 지난해 '전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와 '전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앞장선 바 있다.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배배면 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수출 선포식 축사를 통해 "현재 정부대책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이라며 "올해 10월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재고 17만 톤에 대해 조속히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2024년 예상 초과물량 신곡 40만톤에 대해서도 선제

적 격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확한 쌀 수급예측 개선과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농협은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135톤의 쌀을 수출해 지난해 수출량(117톤)을 넘어섰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연내 수출 1000톤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쌀값 하락은 2023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확기 쌀값이 농가 소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2024년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조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전남도, '김 양식·홍어 식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

광양에 최초 '김 시식지' 흑산홍어 전통 어로방식

전남도가 김 양식어업과 홍어 식문화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나섰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유의 김 양식어업과 독특한 홍어 식문화를 보존하고 가치를 드높일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나란히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기로 했다.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진 지역 내 중요 무형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국제적 브랜드로 키워 나가자는 취지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김 양식을 도(道)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에 이어 김 양식과 홍어 식문화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신청하고 내년 하반기 국가유산청 공모를 통해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양식어업은 완도 등 서남해안 일원, 홍어 식문화는 신안(흑산도)과 목포, 나주(영산포) 일원이 등재 대상이다.

김 양식어업은 17세기에 시작된 가장 오래된 수산양식으로, 다양한 기록에 의해 수백년 이어온 역사성과 전통성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전남은 광양에 최초의 김 시식지(始食地)가 있고, 현재 전국 최대 생산지여서 김 양식어업에 대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홍어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섭취하고 있는 어류로, 생홍어와 삭힌홍어 식문화는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신안 흑산도의 경우 전통적 어로 방식과 생홍어 식문화 전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고 있으며, 목포와 나주 영산포는 유통과 삭힌홍어 식문화의 오랜 역사성을 자랑하는 곳들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 양식과 홍어 식문화는 역사성, 전통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탁월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나면 국제적 인지도도 한층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광주무등도서관 '자료실 통합이전' 임시휴관

9일부터 10월14일까지

광주시립무등도서관은 종합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의 통합 이전 공사로 오는 9일부터 10월14일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디지털자료실(1층)을 종합자료실(2층)로 통합 이전에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 및 전자(디지털)서비스를 야간(오후 6시~10시)에도 운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디지털자료실 이전에 따른 빈공간은 이용자 휴게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휴관 기간에는 도서대출반납, 예약도서 등의 일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단, 전자도서관, 이동도서관, 무인반납기, 책나래,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립무등도서관 누리집(<https://citylib.gwangju.kr/>)과 무등도서관 종합자료실(062-613-7717)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전남보건환경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확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9월부터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기존 402항목에서 412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점 검사항목 확대에 따른 것으로, 생산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약 성분이 추가됐다. 여기에 시험법 변경으로 분석 가능해진 항목을 더해 412항목을 시행한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순천 공영도

매시장 농산물,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농산물, 부적합 빈발 농산물 등 수거 검사를 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신속한 압류, 폐기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문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장은 "이번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어린이놀이터 안전 점검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안전총괄과 직원, 고윤순 안전모니터 단장과 모니터봉사단원들이 3일 광주 북구 우산동근린공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갖고 있다. 김영배 기자

'K-푸드 열풍' 전남산 농수산물식품 몽골서 '인기'

한국주간에 시장개척단 파견 김 등 5천만원 판매·13억 계약

전남지역 농수산물식품이 몽골 현지인들에게 인기몰이를 하며 5000만원 상당의 현지 판매와 13억원 상당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지난 1일까지 3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24 한국주간(KOREAWEEK)' 행사에 전남 수출 유망품목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에서 고흥군과 지역 중소기업 8개 사를 파견해 현지에서 전시와 판매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준비한 물

품이 빠르게 소진되며 케이(K)-푸드에 대한 몽골 소비자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했다.

참가 기업은 대륙식품(주), 매일식품(주), ㈜바다명가, 농업회사법인 ㈜골든힐, 록바이오텍, 유한회사 김시월, ㈜푸른정식품, 완도물산 영어조합법인이다.

특히 김, 유자차, 후리카케, 화장품 등 다양한 전남산 식품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판매되며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고흥군의 ㈜대진을 비롯한 참가 기업들은 전시 기간 동안 총 5000만원 이상의 판매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대진은 몽골의 유력 유통사와 13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일부 기업은 까르프, CU, GS25

등 대형 유통사들과 수출 상담을 추진해 몽골 시장 본격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 같은 성과는 몽골 내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전남도의 우수한 품질이 결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번 몽골 행사에서의 성과를 발판삼아,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 한국주간' 행사는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과 울란바토르시가 공동 주관했다. 전남도와 경북도 등 지자체뿐만 아니라 코트라(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해 행사를 더욱 알차게 구성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사랑에 서포터즈' 혜택 대폭 확대

상인연합회 등 7개 단체 협약 할인가맹점 500곳 추가 약정

전남도는 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 상인연합회 등 7개 단체와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남 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한승주 전남도상인연합회장, 박정선 전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 송기현 한국의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장, 전남도 휴게음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장, 민정기 대한속박업

중앙회 전남서부지회장, 김태군 대한속박업중앙회 전남남부지회장, 이종훈 씨월드 고속웨리주식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7개 단체는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 확대와 고향사랑 실천, 할인가맹점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협력,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할인가맹점 500개소 추가 가입 약정을 하고 서포터즈에게 부여되는 실질적 혜택 확대를 통해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100만 달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현재 260여 개소인 할인가맹점을 연말까지 1000개소, 2026년 6월까지 3000개소로 확대하고, 서포터즈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추가로 발굴해 서포터즈 가입자의 전남 방문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체육회, 대한산악연맹, 향우 중견기업 등 여러 단체·기관과 서포터즈 가입 업무협약을 통해 연말까지 70만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 가입에 동참해준 협회장, 대표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할인가맹점 홍보와 혜택 지원 발굴을 통해 서포터즈 100만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